

연일 확진자 두자릿수에도 '나몰라라'...유흥에 취한 젊은이들

광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첫 주말 유흥가 가보니

구시청·상무지구 12시 영업 제한 전 술집 빈자리 없어 테이블간 거리 가깝고 의자에 앉자마자 '노 마스크' 코로나 장기화로 20대 무신경·무감각 인식 팽배 광주경찰, 유흥가 주변 행정명령 위반업소 2건 적발

18일 새벽 0시께 광주시 동구 구시청 일대와 서구 상무지구 술집 인근, 영업 종료시간이 되자 젊은이 수백명이 일시에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전국적으로 연일 1000명대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광주에도 닷새째 두자리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 없는 분위기였다. 확산세의 조짐을 조기에 잡기위해 광주시가 지난 15일 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 것이 무색했다. 영업 종료 1시간 전인 17일 밤 11시께, 광주시 동구 구시청 일대의 술집에는 젊은이들로 가득 찼다. 술집 안에는 8-9명씩 다닥다닥 붙어 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이 쉽게 눈에 띄었다. 영업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주점과 바에 입장하려는 사람들의 줄은 줄어 들지 않았고, 외국인들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물·음료와 음식을 취식할때만 마스크를 내려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사람을 찾기는 어려웠다. 술집 안에 있는 있는 사람들은 입장할 때만 마스크를 쓰고, 업소에 앉자마자 마스크를 벗어던지는 모습은 여전했다. 술집 내부에서는 음악 소리와 함께

술에 취해 목소리가 커진 20-30대로 시끌벅적했다.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이 대부분 회복된 분위기였다. 영업제한 시간인 밤 12시가 되자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들은 마스크를 내린 '턱스크'를 한채로 삼삼오오 모여 흡연하며 악사지껄 떠들었다. 동구 구시청 중심가인 회전 로터리 한가운데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젊은이들이 '버스킹' (거리공연)을 하고, 거리로 나온 젊은이들은 이들의 노래를 들으며 답배연기를 내뿜었다. 로터리 주변이 뿌옇게 변할 정도였다. 서로 일면식이 없는 낯선 이들과 거리도 턱스크를 한채 서슴없이 이야기를 나눴다. 집에 돌아가기 아쉬운 젊은이들은 한동안 거리를 서성이며, 서로 아슬아슬한 즉석 만남을 이어갔고 새벽 0시40분이 넘어야 하나들 자리를 떴다. 그들이 떠난 자리와 거리에는 셀 수도 없는 담배꽂이가 수북하고 이들이 뺐은 가래가 도로를 뒤덮었다. 이 시각 환자를 이송해야 할 구급차는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취해 쓰러진 젊은이들을 구조(?)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장면을 연출했다. 구시청을 찾은 김모(26)씨는 "코로나가 확산세라고 하지만 주변 친구들이 걸리는 경우는 없었다"

면서 "우리 지역보다는 수도권이 문제지 않느냐"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일대도 20-30대로 붐비긴 마찬가지였다. 상무지구 일대 주점들도 빈 자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북새통을 이뤘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헌팅포차의 경우 이날까지 8인 이하 사적 모임이 가능한 탓에 주점들 내에는 테이블을 이어 붙여 술을 마시는 단체 손님들이 상당수였다. 자정이 가까워오자 버티기 버티다 영업 종료를 알리는 종업원의 외침에 계산을 하려는 손님 열댓명이 주점 내 카운터 앞에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술집에서 쏟아져 나온 젊은이들로 상무지구 중심가는 북적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일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고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서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이 어느 때보다 우려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민간전문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최진수 전남대 의대 명예교수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무신경·무감각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나 나는 한 걸린다는 생각하지 말고 젊은 층에서도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인내해야 할 시기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부임한 김준철 광주경찰청장은 18일 새벽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서구 치평동 소재 유흥 시설 밀집지역을 찾아 유흥가 주변 행정명령 준수 실태 점검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유흥주점 등 185개소를 점검,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2건(2명)을 적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밤 11시께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를 찾은 젊은이들이 마스크를 내린 채 유흥가 주변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흡연을 하고 있다(위쪽). 김준철 신임 광주경찰청장이 지난 18일 0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소재 유흥 시설 밀집지역을 찾아 유흥가 주변 행정명령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감염 차단·의료진 보호 '음압 선별진료소' 광주 첫 개소

동구 보건소 22일 문 열어 접수·역학조사·문진 등 실시

광주시 동구 보건소에 광주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상시 음압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운영에 들어간다. 코로나바이러스 검체채취를 위한 상시 음압 선별진료소는 검사자로부터 배출된 입자의 확산 및 교차 오염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감염병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음압시설이 완비된 동구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가 오는 22일 개소한다. 그동안 동구 보건소의 선별 진료소는 동구청 주차장 내에 컨테이너를 간이형태로 개조해 임

시 선별진료소를 운영했지만, 지난해 9월 정부의 공모 사업에 응모해 선정됐다. 동구 외에 서구와 북구도 함께 선정됐다. 동구는 총 4억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 보건소 1층 공간(126.5㎡)을 리모델링해 음압 선별진료소로 활용한다. 이와 달리 서구와 북구는 음압 선별 진료소를 신축하기로 했으며, 코로나로 인해 원자재 공급이 마뒀겨 각 오는 8월과 10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구의 상시 선별진료소는 진료실·검체채취실·엑스선실·의료폐기물 처리실 등 4개 공간은 음압실로 마련했다. 이외에 안내·접수실, 탈의실 물품보관실, 사무실 등도 갖춰진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 시에는 감염병 대응에 사용되고 평상시에는 결핵, 홍역 등 호흡기 감염병 환자 전용 진료실로 활용할 예정

이다. 음압실은 선별진료소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내보낼 때 HEPA필터를 통과하게 해 바이러스 등 병원균을 걸러주고, 선별진료소에서 내부 공기 흐름을 한 방향(예를 들어, 의심 환자가 바람을 맞게 해 마주앉은 검사자에게는 바이러스 접촉 차단 조치)으로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동구는 민원인들은 최소한의 동선으로 짧은 시간에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쾌적한 공간에서 역학조사 및 검체 채취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새로 도입될 음압 선별진료소가 각종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폭 넓은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동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처음 본 아동 강제추행 공무원, 2심도 벌금형

처음 본 아동들에게 성적 언동을 일삼고 강제로 추행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7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3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한 지역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아동 3명에게 성적 언동과 함께 강제추행하고, 정서적 해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서부경찰, 20대 여성 강제 끌고간 30대 구속

새벽 귀갓길에 20대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간 괴한이 구속됐다. 광주서부경찰은 18일 새벽 시간 귀갓길 20대 여성을 인적이 없는 주차장으로 끌고 간(체포·감금 등의 치상) 혐의로 A(3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6일 새벽 1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골목길에서 20대 여성 B씨의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인근 교회 주차장으로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괴한에 납치될 뻔 했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도 강력 사건이 아닌 일반 사건으로 처리하는 등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뒤늦게 강력사건으로 전환한 경찰은 A씨에 대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증거를 보강, A씨에 대해 체포·감금 등의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투자 가치 100% 확신! 강력추천!



서구 쌍촌동

(한국병원 부근)

- 대 지 : 2,700 m²
- 건 물 : 3,704 m²
- 지상4층 근린생활시설
- 지하2층 주차장 기계실

매도가격 협의

감정가 5,920,417,660원

상담 010-3733-3933